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새로운 개입전략 도입	뉴사우스웨일즈
문화·관광	4	그래피티 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헬싱키
산업·경제	6	낙후된 중앙도매시장 시설 정비 구상 발표	교토
	8	사회적/연대적 경제상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적 경제활동 지원	파리
	11	국제교육 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추진	빅토리아
행정·교육	15	파리 최초의 여성 시장, 안 이달고 시장 취임식 개최	파리
환경·안전	18	교통소음구간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방음창 설치 지원사업 실시	베를린
	21	반려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생을 위한 '할스플랜' 실시	도쿄
도시교통	22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언덕길에 자전거 케이블 설치	트론헤임
	25	도심에서의 택시 공유 가능성 분석	뉴욕
도시계획·주택	27	저렴 주택 중심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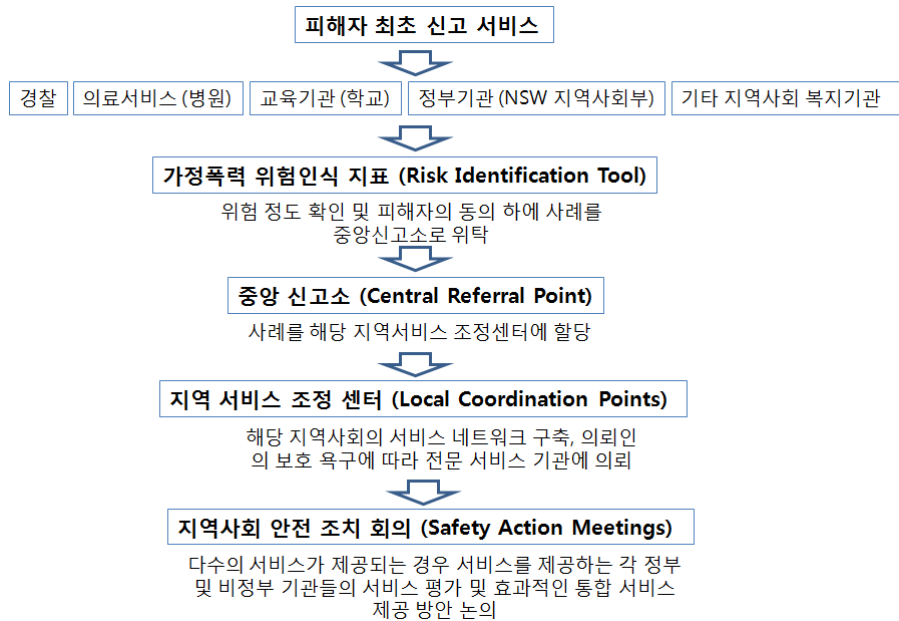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새로운 개입전략 도입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사회·복지

-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는 “여기서 그만 : 가정폭력 프레임워크”(It Stops Here: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Framework)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개입전략을 도입하기로 함. 2011년에 가정폭력 서비스 개혁이 제기된 이후 뉴사우스웨일스주 ‘가족 및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여성국(Women NSW)에 의해 주도되어 온 이번 개혁안은 약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가정폭력 전문가 그룹의 자문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으며, 각 관련 기관들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정책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베이(Survey)도 실시하였음. 광범위한 정책 제안과 자문에 기초한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 즉 가정폭력 예방 기능 강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화, 그리고 가해자들의 책임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정부의 이번 개혁은 기존의 가정폭력 방지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반성에 기초하고 있음. 주정부 경찰청 통계의 의하면, 2012년 한 해에 총 29,900 건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폭행사건이 발생함. 연간 약 125,000건의 가정폭력이 경찰청에 신고되고 있으며, 미신고 가정폭력이 약 300,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호주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은 40대 이하 여성들의 사망 및 장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약 4분의 3에 이르는 여성들의 살해 사건이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됨. 가정폭력으로 인해 매년 약 4억 5천만 호주달러(약 4조 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Framework)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전략과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조정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음. 즉, 기존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경찰, 학교, 주치의, 정부기관, 또는 가정폭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비스에 접근해 왔으며, 최초 접근 기관에 따라 다른 내용과 수준의 서비스로 귀결되기도 했음.

- 피해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보호 서비스(재정지원 서비스, 주거 서비스, 의료 서비스, 정신의료 서비스 및 사법 서비스 등)를 필요로 하는데, 통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받지 못하고 원하는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음.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일관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새로운 가정폭력 프레임워크 서비스 전달체계

- 중앙 신고소(Central Referral Point), 지역사회 서비스 조정 센터(Local Coordination Points),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 조치 회의(Safety Action Meetings) 설치하는 이번 전달체계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임. 피해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를 받은 기관들은 '가정폭력 위험인식 지표'(Risk Identification Tool)를 활용하여 위험의 실재와 정도를 확인함. 이 위험인식 지표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며, 최초 위험을 인식한 기관은 이 사례를 중앙 신고소로 보냄. 경찰의 경우 위험인식 지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유관 기관의 경우에는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지표 활용이 권장됨.

- 중앙신고소는 전자의뢰시스템(electronic referral mechanism)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동안 신고를 접수받음. 접수된 사례는 피해자가 소속된 해당 지역사회의 서비스 조정센터에 할당됨. 단, 피해자가 기존에 서비스를 받아 왔던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 신고 사례들은 자동적으로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되어,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증거 기반 연구(evidence-based research) 등에 활용될 계획임.
 - 지역사회 서비스 조정센터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들에게 해당 사례를 의뢰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조정센터는 위험인식 지표 결과를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제공할지를 결정함.
 - 지역사회 안전조치 회의는 해당 사례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함.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모여 해당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 조치들을 모색함. 지역사회 안전조치 회의는 특히 폭행이나 살해 등으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전하거나 재발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피해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경찰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됨.
- 새로운 가정폭력 프레임워크는 홈페이지(http://www.women.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5/272867/3068_WNSW_DVR-Core_BOOKLET_Update_d_040713.pdf)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음.

<http://www.nsw.gov.au/news/new-domestic-violence-framework-unveiled>

문화·관광

그래피티 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핀란드 헬싱키市 / 문화·관광

- 헬싱키(Helsinki)市는 2014년 여름까지 그래피티(graffiti, 낙서)가 허용되는 장소를 세 곳 늘려 총 11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동이 가능한 그래피티 트레일러(trailer)에 GPS 기능을 부착해 시민들이 모바일로 그래피티가 가능한 장소와 차량을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함.
- 1990년대에 헬싱키, 스톡홀름, 오슬로 등 북유럽 국가의 도시는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굵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을 의미)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여 도시 곳곳에 생겨나는 그래피티를 제거하고, 특수 편성된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심되는 용의자를 색출하는 등 엄격한 정책을 펼쳤음.
 - 그래피티는 시민에게 위화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약물과 폭력, 절도 등 도시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북유럽 국가 도시들은 그래피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음.
 - 그러나 증가된 단속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도시 곳곳에서 생겨나는 그래피티를 근절하는데 실패함. 헬싱키市에서 그래피티 제거에 지출하는 연간 비용은 이십만 유로(약 2억 8천만원)에 달함.
- 이에 헬싱키市의 공공사업과(Public Works Department)와 청소년과(Youth Department)는 최근 합법적인 그래피티 장소를 만들고 시민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 시정부는 헬싱키 지역 8곳에 그래피티가 가능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동안 지하에서 힙합문화에 기반해 그래피티를 주도하던 Supafly라는 단체에 관리 역할을 맡김.

- 또한 그래피티가 가능한 특수 차량을 마련하여 도심 곳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한편, GPS기능을 통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그래피티로 채색된 차량은 독특한 공간과 장소와 어울리며 도시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함.
- Supafly는 그래피티 지정장소와 차량을 관리하는 한편, 그래피티에 필요한 도구 및 페인트와 스프레이를 제공/대여하며,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Jakomäki 지역 야구장 펜스에 설치된 그래피티 벽(좌)과 그래피티 지정장소 알림판(우)



이동이 가능한 그래피티 차량

- 헬싱키市에서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제한된 방식으로 그래피티를 시민 전체에게 개방하고 있음.
- 市는 이 사업이 거리 예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市 공공사업과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합법적인 거리예술을 즐기는 동시에 다른 시민을 배려하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효과도 거둘 것

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래피티 지정 장소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배려를 위한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알림판이 마련되어 있음.

<http://www.hel.fi/hki/helsinki/en/news/street-art-trailer>

<http://www.hel.fi/hki/nk/en/latest+news/new+street+art+trailer+rolls+into+helsinki++follow+the+trailer+online>

<http://www.supafly.net/>

산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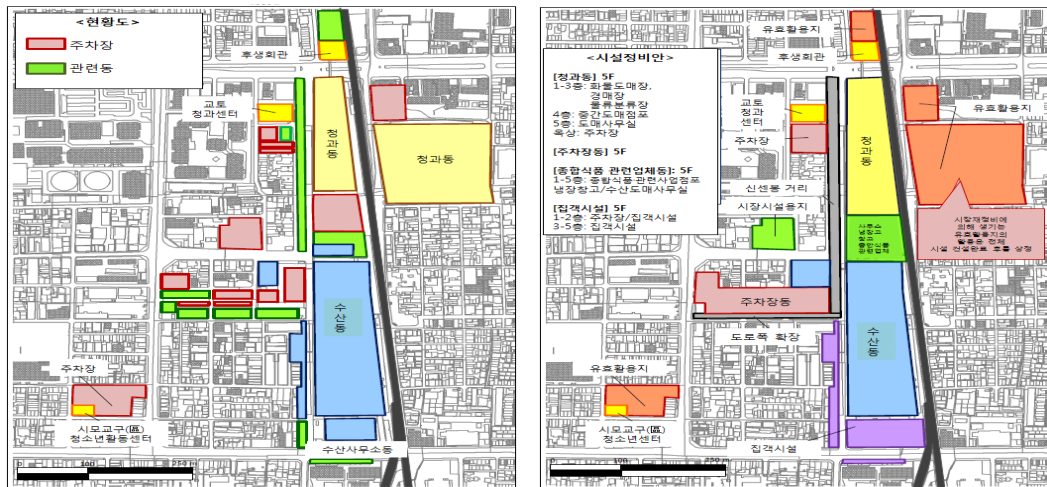
낙후된 중앙도매시장 시설 정비 구상 발표

일본 교토市 / 산업·경제

- 교토市 중앙도매시장 제1시장은 1972년 개설된 일본 최초의 도매시장으로서 청과, 신선 수산물, 가공 수산물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시장으로 신선 식료품의 중요한 유통 거점임.
- 하지만 다른 도매시장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교토 중앙도매시장 제1시장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수와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의 거래액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소비자의 신선식품 구입처 변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시장 내 주요 건축물의 노후화 진행이 심각함에 따라 거래되는 식품의 안전 문제, 환경문제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시설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남북방향으로 긴 직사각형 구조로 형성된 시장은 수산물등과 청과물등의 물류 동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물류 정체현상이 발생함. 또한 화물 하차 및 적재를 위한 작업 공간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교토市는 지난 2014년 1월 7일 공표한 「교토 중앙 도매 시장 제1시장 시설 정비 기본 구상 (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2014년 3월 「교토 중앙 도매 시장 제1시장 시설 정비 기본 구상」을 발표함.
- 시장 경영의 기본 목표는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경쟁력 있는 ‘식료품’의 유통거점으로, 교토를 중심으로 킨키 · 호쿠리쿠 권역까지 포함하는 청과물 식료품의 유통 거점을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량을 증대시키는 것임. 궁극적으로는 도매 시장의 기능 향상을 통해 일본의 음식 문화 발달을 견인하고자 함.
- 시장 시설의 정비는 기본적으로 ‘시설 규모의 소형화(콤팩트화)’, ‘효율화’와 ‘고층화’를 지향하며, 향후 시설의 소형화에 의해 생기는 여유 부지(유효활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함. 유효활용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 정비가 끝난 후에 검토할 예정임.
- 또한 물류 동선의 효율화를 위해 도로를 확충하고 신선 식료품의 온도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함. 재해 발생 시에도 신선 식료품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며,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발전과 LED 라이트를 도입하고 자원 재활용 등에 관한 시설을 정비함.
- 청과물등은 전체적으로 재개발하여 2025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수산물등은 수리·보수를 거쳐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임.



<http://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164271.html>

<http://www.city.kyoto.lg.jp/sankan/cmsfiles/contents/0000164/164271/honnsatu.pdf>

사회적/연대적 경제상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적 경제활동 지원

파리市 / 산업·경제

- 파리시는 2010년부터 ‘사회적/연대적 경제상(經濟賞)’(Trophées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을 제정해 협동 생산과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 통합을 돕는 조직들의 창립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파리시는 경제활동을 위한 고용지원 구조에 대한 지원,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과 프로젝트 제안자 지원, 윤리적 소비 촉진의 세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연대적 경제를 지원하고 있음.
- 2013년에는 11개 기업이 ‘사회적/연대적 경제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파리 19區的 협동가게인 La Grosse Patate의 활동이 주목을 받았음.
 - La Grosse Patate는 2012년 2월 파리 19區의 사회적 약자 지원센터 J2P 근

- 2013년에는 11개 기업이 ‘사회적/연대적 경제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파리 19區的 협동가게인 La Grosse Patate의 활동이 주목을 받았음.

- La Grosse Patate는 2012년 2월 파리 19區의 사회적 약자 지원센터 J2P 근

처에 문을 연 야채가게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지역 먹거리를 유통시키는 연대적 협동상점임. 이 상점은 1999년부터 파리 19區와 17區에서 시민 주도의 채소 유통과 문화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와 지역 축제를 열어온 협동조합 ALINEA가 좀더 안정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이어가기 위해 오픈한 것임. 목적은 동네의 모든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근교 농장의 제철 먹거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또 동네 주민들이 사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자는 것임.

- Laumière-Ourcq 동네에 뿌리내린 이 새로운 유형의 상점은 드럼 교실, 서예 강좌, 그림 전시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도 개최하고 있음.

- 2013년도 사회적/연대적 경제상에 선정된 단체와 파리市 지원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2013년도 사회적/연대적 경제상(經濟賞)에 선정된 단체

단체 명	사업 내용	파리市 지원내용
LA RESERVE DES ARTS(파리 14구) - 2008년 개설된 비영리단체	이 단체는 기업들의 폐기물이나 원자재 자투리 등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창작 전문가들(미술 작업자나 무대미술가 등)에게 저렴하게 재판매함.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문화 영역을 지원하며, 재활용을 촉진하는 1석3조 효과를 노리고 있음.	이 단체의 계약직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창작 스튜디오를 위한 재료(재활용) 자재를 구입 지원
ALINEA(파리 19구, 17구) - 1999년 창립된 협동조합	연대적 협동상점 La Grosse Patate의 모 단체로 지역의 친환경 제철 농산물 유통	현재 자원봉사자 1명이 상점 물건 배치와 손님맞이를 하는데 이를 CAE(Contrat d'avenir, '청년 고용 계약') 1명으로 전환하고,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할 주 20시간 근무의 정규직 1명의 임금을 지원
TRANSPORT CHALLENGER (파리 20구) - 2012년 창립된 비영리단체인데 현재 협동회사(SCIC, 집합이익을 위한 협동회사)로 전환 중임.	자동차가 없는 개인과 기술자들에게 저렴한 운송수단을 제공함. 출소자들을 운전자로 채용하여 그들이 사회 적응기간에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신규 일자리를 창조하고 본 단체 활동의 홍보를 위한 수단 강화 비용 제공
EXTRAMUROS (파리 20구) - 비영리단체	엑스트라무로(Extramuros)의 기술자들은 재활용 수거품, 특히 나무와 직물류를 재료로 해서 작은 오브제들이나 가구들을 만들어 판매함. 2012년부터 이 단체는 파리 20구에서 '불량 청소년 예방 클럽'의 수강생들을 위한 교육용 작업장을 마련해서, 재활용품으로 수거한 나무들로 집단적으로 가구를 생산함. 20區 중심부인 메닐몽탕(Ménilmontant)에 제2교육장을 설치해서, 지역 가치가 상승하는 메닐몽탕 남부 지역과 사회적 주택단지인 Cité Bonnier의 사회통합에 기여	제2교육장 설치를 위한 임대비용 지원과 고용 지원

단체 명	사업 내용	파리市 지원내용
MEZZANINE ADMIN(파리 20구) - 2012년 창립된 문화기업 그룹	이 그룹은 총 20여 개의 영화제작사와 무대공연 단체들의 연합임. 이 단체는 이러한 유형의 회사에 적합한 회계운영 교육이 부재한다는 사실에 대응해서, 이 공통 분야에서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할 작업수단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지님. 관련분야의 회계 담당 직원들 공동 교육	강사 채용과 참여기업 간 커뮤니케이션 수단 개선비용 제공
LES ATELIERS DE NATEMA (파리 20구) - 2006년 창립한 비영리단체	2007년부터 이 단체는 파리 20구 레유니옹(Réunion)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 간의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비정주적인(임시설치된) 예술 활동들을 조직해 왔음. 놀이카페 창립 등 안정적인 단체 활동을 제공하면서 또한 지역 생산품을 할인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점 역할도 함.	2명의 정규직 창출 지원 및 문화활동가 1명과 요리사 1명 지원
EMPLOI & INTERIM(파리 19구) - 2013년 창립	기간제 고용 연계 회사인 Emploi & Intérim ('일자리와 임시직'이라는 뜻)은 실업중인 장애인들에게 임시직 취업을 통해 정규직 자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함. 본 회사는 실은 지난 20년간 파리 시내에서 장애인 고용 활동을 펼쳐온 단체 UNIRH75의 자회사임. 본 단체는 장애인 고용의 15%가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실에서 착안해 본 회사를 창립함. 단순히 임시직 고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기업에서 임시직으로 채용된 장애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고용과정을 동반 관리함. 2013년 7월에 창립된 회사 구조를 발전시켜, 연간 200~300명이 정규직에 고용될 수 있도록 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함.	상근직 고용상담 직원 고용비용 일부 지원
SOLIDARITE ETUDIANTE (파리 전역) - 2002년 비영리단체로 창립한 후, 2013년 협동회사로 전환	'학생연대'라는 뜻을 지닌 이 사회적 기업은 학생들 간의 연대 활동과 상호부조 활동을 조직하는 협동조합에서 출발함. 이들의 최근 활동으로는 앙토니(Antony) 거리에 저렴한 연대적 식품점을 개설한 것임. 오늘날 파리의 18~25세 학생들 가운데 단 1%만이 시립 기숙사에 머물고 있어, 학생 주거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활동을 할 예정임. 집을 찾는 학생들과 공공 임대주택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공공 임대주택 내에서 공동주거 계약을 진행	본 학생 네트워크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프로젝트 비용 지원
STUDIO CARTON (파리 13구) - 2008년 창립한 비영리단체	파리 13구에 위치한 재활용가게 'Ma Ressourcerie'(마 레수르세리, '나의 재료가게')의 운영과 쓰레기 배출 예방 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단체임. 이용자들이 직접 재활용품에서 추출한 옷감과 재료 등을 이용해 옷과 악세사리 등을 만드는 아틀리에를 개설함. 그 밖에 이용자들의 구매행위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알려주는 윤리적 소비 교실과 관련 행사 등도 운영함.	청년고용 계약 방식으로 활동가 2명 급여 지급
LA PETITE ROCKETTES (파리 11구) - 2006년 창립한 비영리단체	파리 11구 오베르캄프(Oberkampf) 거리에 자리한 재활용 가게임. 연대적 상점과 친환경 감수성 교실을 2005년부터 운영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친환경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킴. 자전거 "수리 카페"도 개설함. 자전거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직접 자신의 자전거를 고칠 수 있음.	현재 주당 20시간 근무자들을 주 35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고용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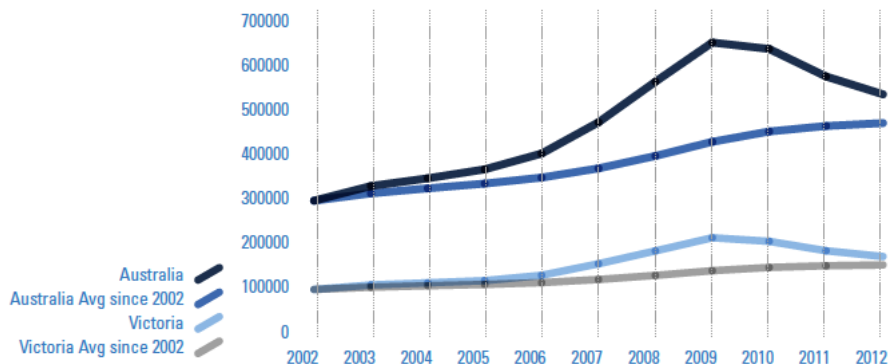
단체 명	사업 내용	파리市 지원내용
REZOSOCIAL (파리 18~19구) - 2013년 7월 창립한 약식 주식회사로, 고용지원기업(Entreprise d'insertion) 선정 요청 중	IT 서비스 분야 재취업 촉진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회사임. 이 회사의 주요 활동은 사회적/연대적 경제 분야의 수많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유지 및 상업화 하면서, 자사 고용인력들을 재교육하는 데 있음. 고용지원기업을 설립해, 청년뿐 아니라 80~90년대에 전산 분야에서 일했던 장년층들을 고용 및 재교육	회사 설립자들의 투자 비용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각 근로자의 첫 달 월급과 커뮤니케이션 도구 강화비용 지원

http://www.paris.fr/accueil/emploi-recrutement/economie-solidaire-la-grosse-patate-recompensee/rub_9655_actu_138100_port_23780

국제교육 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추진

호주 빅토리아州 / 산업·경제

- 최근 발표된 호주의 유학생 통계에 의하면, 빅토리아(Victoria)州는 2013년에 유학생 수가 143,000여 명에 달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10.2% 증가를 보였으나, 최근 州의 유학생 유치는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해 오던 유학생 수는 2009년에 최고치에 이른 이후 2012년까지 약 28%의 감소를 경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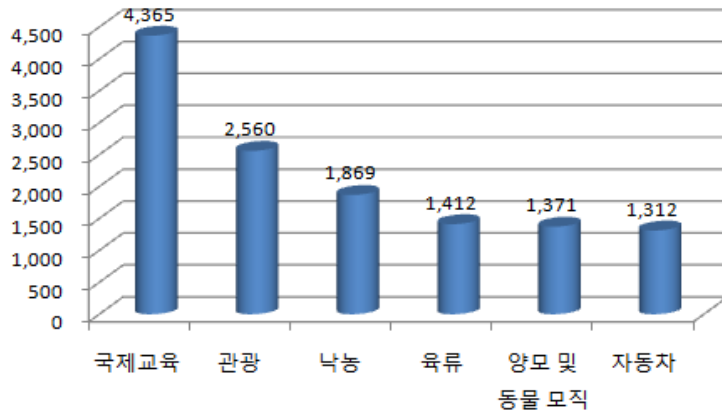


빅토리아州 유학생 유치 추이

- 유학생의 감소는 州의 경제, 사회 및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특히, 빅토리아州

의 경우 국제교육(international education) 산업은 단일 산업으로서는 州의 가장 큰 수출산업이기 때문에 州의 예산수입은 국제교육 산업의 실적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즉, 2009년에 57억 4천만 호주달러(약 5조 7천 4백억 원)에 달했던 국제교육 수출은 2012년에 43억 6천만 호주달러(약 4조 3천 6백억 원)로 감소하여 중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기도 함.

- 이에 州는 교육도시로서의 국제적 명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교육 5개년 전략(International Education Strategy for Victoria 2013 - 2018)”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이 전략에서는 앞으로 국제교육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교육산업에 대한 수요 관리가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난 2000년에 전 세계적으로 210만 명이었던 국제 유학생 수는 2010년에 42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25년에는 7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州는 국제교육 산업에 대한 기회요인들에 기반하여 앞으로 국제교육에 관한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함.



빅토리아주 주요 수출 산업 (2012년 현재,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국제교육 5개년 전략”에서는 크게 네 가지 실행 분야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총 19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네 가지 실행분야는 시장 개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유학생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마케팅과 상품성(branding) 강화임.

- 첫 번째 실행 방안은 네 가지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적 실행 지원으로서, ‘국제교육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education advisory body)를 구성하는 것임. 州的 교육기관들, 정부기관, 그리고 유관 비즈니스 대표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국제교육 산업에 대한 자문 기능과 함께 통합적이고 조율된 국제교육 산업 추진 지원을 목표로 함.
- 시장개발 : 국제교육 시장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함. 즉, 마케팅 대상 지역을 이미 확립된 시장(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등), 그리고 초기 개발단계에 있는 시장(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으로 구분하고, 이미 확립된 시장보다는 신규 시장 개발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지만, 빅토리아州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 유치에 우선 순위로 선정됨.
- 양질의 교육 제공 : 해외에서 국내로 정착하여 제공되는 국내교육(onshore)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offshore) 빅토리아州의 대학이나 교육기관들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의 교육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함.
- 유학생 삶의 질 향상 : 유학생들에게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함. 이를 위해 멜버른 도시에 ‘멜버른 유학생 지원 센터’(Study Melbourne Student Centre)를 설립하여 생활 정보, 의료 및 각종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유학생들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을 강화하여, 향후 2015년부터는 유학생들에게 5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임. 또한, 지역사회 활동참여와 멜버른의 라이프 스타일 경험을 촉진하기 위해 ‘멜버른 유학생 카드’(Study Melbourne Card)를 발급하고, 각종 문화 및 스포츠 행사 시에 할인 혜택을 제공함.
- 마케팅 및 브랜딩 : 국제 교육 산업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더욱 통합적으로 하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일 브랜드로 마케팅을 진행함. 현재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유학생 지원 사업들은 향후 ‘스터디 멜버른’(Study

Melbourne)이라는 단일 브랜드 하에서 진행됨. 스터디 멜버른 웹사이트를 재구축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 웹사이트를 통해 학교 정보, 유학생 지원 정보, 마케팅, 그리고 소셜 미디어 활동을 촉진함. 기존에 멜버른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 교육 도시로서의 명성을 해외 시장에 더욱 널리 알려 그 인지도를 제고하고, 빅토리아주에서 유학한 동문들의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국제 동문 활동과 교류를 지원함.

국제 교육 전략 개요

전략적 실행 분야	세부 실행 방안
시장 개발 (market development)	- 해외 주요 마케팅 대상 지역에 배치된 교육서비스 매니저(Education Service Managers)들에 대한 지원 증가 및 인원 총원 배치 - 해외 지역별 시장 점유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국내 교육(onshore) 또는 현지 교육(offshore) 등 교육서비스 전달 방식을 전략적으로 결정 - 협력모형(collaborative model)에 기초한 사업추진: 정부, 교육 기관, 그리고 비즈니스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육상품 패키지를 개발 - 대학교육과 함께 기술교육(vocational education)을 국제교육 상품으로 개발
양질의 교육 제공 (quality of international education)	- 현지 교육 서비스에 관한 규제 및 정책을 검토하고, 현지에서도 국내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 -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해외의 우수한 학자들을 빅토리아로 유인 -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습득 강화 - '빅토리아 국제 교육상'(Victorian Government International Education Awards) 제정
유학생 삶의 질 향상 (student experience)	- '멜버른 유학생 지원 센터'(Study Melbourne Student Centre) 설립 - 유학생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유학생들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확대(Study Melbourne Internship Program) - 유학생들이 빅토리아주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고, 지역 문화 및 라이프 스타일 경험을 촉진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 - 유학생들과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구축
마케팅 및 브랜딩 (marketing and branding)	- 기존에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유학생 지원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스터디 멜버른'(Study Melbourne)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구축하여 제공 - '스터디 멜버른' 웹사이트를 유학생 지원, 마케팅,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의 포털로 활용 - 비즈니스 간(B2B) 및 정부와 비즈니스 간(G2B)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해외 마케팅 대상 지역의 정부기관, 정책 결정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 - 교육도시로서의 멜버른에 대한 이미지와 명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 - 빅토리아주의 유학생 동문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

- “국제교육 5개년 전략”은 홈페이지(http://dsdbi.vic.gov.au/__data/assets/pdf_

file/0005/67064/PDF-International-Education-Strategy-2013-2018.PDF)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음.

<http://www.premier.vic.gov.au/media-centre/media-releases/9535-international-student-numbers-up-10-2-per-cent-above-national-average.html>

행재정·교육

파리 최초의 여성 시장, 안 이달고 시장 취임식 개최

파리市 / 행재정·교육

- 2014년 3월 23~28일 동안 1, 2차 투표를 통해 구청 및 작은 도시들의 선거가 치러지고, 파리,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등 대도시들은 구의원들을 통해 시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시장 선거가 치러졌음. 정당을 가리지 않고,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시민들은 대형 정책들을 책임감 있게 실천해 온 전임 시장들을 다시 선택한 가운데, 파리市의 경우 베르트랑 들라노(Bertrand Delanoë) 전임 시장 시절 수석부시장을 역임한 안 이달고(Anne Hidalgo)가 4월 5일 파리 시의회 간접선거에서 파리 시장에 선출되었음.
- 선거당일 시의회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안 이달고 시장은, 6년의 임기동안 모든 파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념(종교)과 살아온 이력, 출신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장이 되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방향을 밝힘.



2014년 4월 5일, 파리 시의회에서 시의원 간접선거 투표로 선출된 안 이달고 신임 파리 시장의 취임 연설 모습(출처: 파리 시청)

- 파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 : 나치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도시이자, 프랑스 혁명과 파리코뮌(Commune de Paris)의 무대인 평등의 도시 파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박애의 기반에서 관용과 상호 존중 정신에 입각해 시정을 운영하겠음.
- 주거 문제 해결에 총력 :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6월까지 주택 문제 관련 주체들을 모두 소집해 연간 1만 호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겠음.
-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 :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주거를 공급할 예정이며, 어린 이집 수용정원을 5천명 이상 확충하겠음. 노년층과 장애인에 대해 특별히 배려하겠음. 사회적 배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적 배제도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환경 개선 :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 정책 전환은 필수이며, 특히 대중교통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 감소에 주력할 예정임.
- 경제 부흥 : 친환경 기술과 정책을 통한 혁신경제도 중요함. 사회적/연대적 기업이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타트업 창업이든, 혹은 이것들이 모두 혼합된 형태이든, 대학과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촘촘히 하면서 파리 경제를 부흥할 계획임.
- 문화활동 장려 : 문화산업은 파리 경제 부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임. 기업과 단체, 창작자들과 스포츠 종사자, 노년층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분야를 창출할 계획임.

- 시민 참여 :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경을 조성하기 위해, 洞 예산의 5%를 “사회적/친환경 경제 회의”에 투입할 예정이다. 거대도시 파리의 여러 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집합적인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민주주의가 필요함. 이를 위해 시장 자신이 구청장, 구의원, 노조 대표, 비종교단체 및 종교단체, 지식인, 예술가, 스포츠인 등 다양한 시민과 단체들과의 항시적인 폭넓은 대화창구를 마련하겠음.
 -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도 파리의 공공 서비스가 소외계층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름.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市 공무원들의 확고한 직업의식과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이 중요함. 꾸준한 대화를 통해 공무원들과 이러한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겠음.
 -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시민사회와 공무원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고자 함. 이를 통해 파리의 전체의 거버넌스 능력이 향상될 것임.
- 안 이달고 시장은 취임식에 이어, 총 21명(21개 부서)의 부시장단(남성 10명, 여성 11명)으로 구성된 시정 간부진을 구성했음.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 전 임 시장의 36명(36개 부서)에 비해 훨씬 젊은 연령대 실무진이 콤팩트한 시정을 펼칠 예정이다. 안 이달고의 파리 시정부는 사회당과 녹색당의 연정으로 구성됨.
- 전체 부시장 중 절반 이상이 30대이며, 특히 파리의 핵심 정책부서인 문화 정책 부시장에 프랑스 사회당의 브뤼노 쥘리야르(Bruno Julliard, 33세)가, 주거정책 부시장에는 프랑스 공산당의 이앙 브로사(Ian Brossat, 33세)가 임명되었으며,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부시장에 녹색당의 셀리아 블로엘(Célia Blauel, 32세)이 임명됨.

http://www.paris.fr/politiques/conseil-de-paris-debats-deliberations/suivez-l-election-de-anne-hidalgo-en-direct/rub_6769_actu_142174_port_24625

<http://www.paris.fr/viewmultimediadocument?multimediadocument-id=142439>

http://www.lemonde.fr/paris/article/2014/04/05/conseil-de-paris-anne-hidalgo-opte-pour-une-equipe-reduite_4396435_1779311.html?xtmc=anne_hidalgo&xtcr=3

환경·안전

교통소음구간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방음창 설치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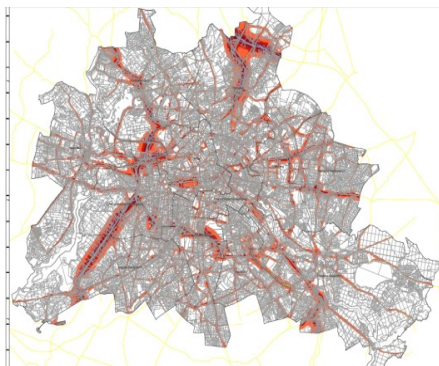
실시

베를린市 / 환경·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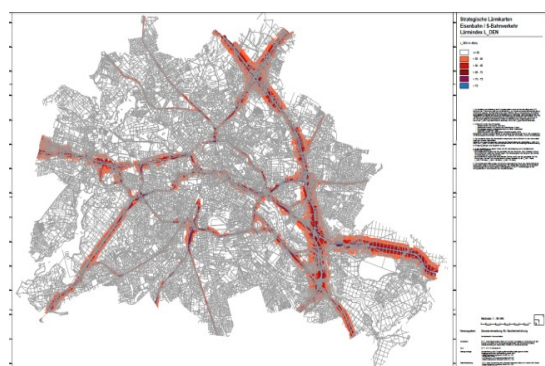
- 베를린市는 ‘저소음 도시 만들기’를 위해 소음방지계획을 실행 중임. 그러나 원활한 교통망 확보의 관점에서 소음처리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방음창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함.
- 베를린市는 도시소음을 심각한 공해로 규정하고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교통공해를 줄이기 위한 기존의 다양한 조치들을 수정·보완한 “소음방지계획 2013-2018”(Lärmaktionsplan 2013-2018)을 발표하였음.
 - 이 계획에서는 우선적으로 교통계획 및 교통 조정, 환경 친화적이고 소음 적은 교통수단 이용 강화, 도로 정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들을 통한 소음감소 대책에 중점을 둬.
 - 그러나 적극적인 소음방지 조치가 모든 도로에서 다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님.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개선을 위해 소음공해를 대폭 감소시켜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능적으로 좋은 교통네트워크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
- 실제로 도시 안에는 교통을 우회시키거나 속도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기 어려운 구간이 많음. 특히 대로와 철로가 이 경우에 해당함. 교통량이 많은 대로 및 철로 구간의 건물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市는 소극적인 조치로서 3월부터 방음창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함. 낮 소음 70데시벨, 밤 소음 6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구간에 위치한 주택들은 이번 방음창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이 됨. 지원 사항은 소음구간에 위치한 주택의 창문 외에도 출입문, 환기구와 같은 부속장치들도 포함됨.
 - 외부소음이 침입하는 통로는 대부분 주택의 창문임. 일반 창문의 경우 방음효

과는 대부분 20~25 데시벨 정도임. 그러나 시끄러운 대로외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창문이 방음등급 4 또는 5정도의 방음창으로서 40데시벨 이상의 방음효과를 갖춰야 함. 이러한 방음창을 설치할 경우 방음효과는 기존 창문 대비 약 4배의 효과를 냄.

- 소음보호 4등급에 해당하는 주택은 창문과 문 등의 교체 시 평방미터 당 250 유로(약 36만원)씩, 소음보호 5등급의 주택에 대해서는 평방 미터당 350유로(약 50만원)씩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증명된 견적서 비용의 최고 90%까지, 한 주택 당 최고 6천유로(약 866만원)까지임.
 - 소음구간에 위치하더라도 이미 연방정부의 소음방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市는 2013년에 다양한 교통 소음 측정과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市의 전략적 소음지도를 작성함.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도시발전환경국 홈페이지의 방음창 지원사업 사이트에 들어가 소음지도 상에서 자신의 집이 보조금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온라인 상으로 주택의 주소와 주택종류, 건축년도, 창문과 문의 갯수 등을 적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됨. 지원기간은 2015년 말까지임.



전략적 소음지도: 도로교통



전략적 소음지도: 철도·지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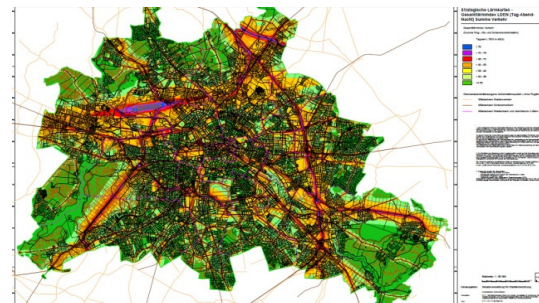
전략적 소음지도: 지하철·트램



전략적 소음지도: 항공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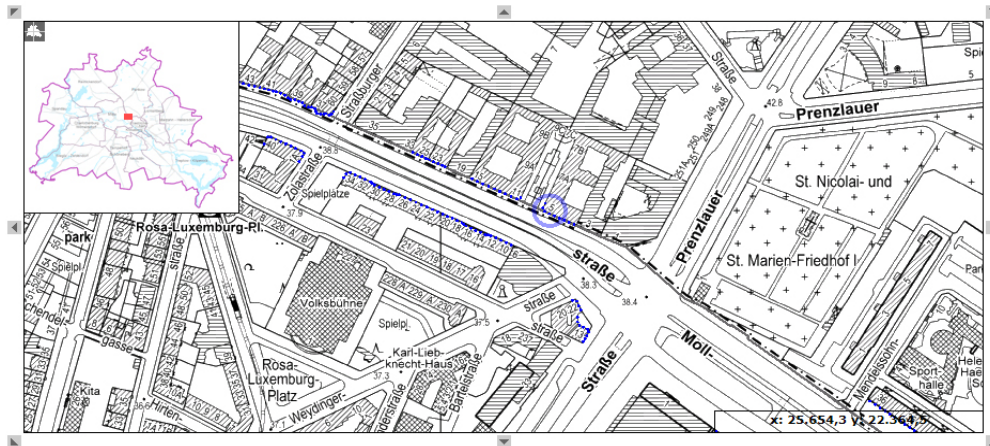


전략적 소음지도: 산업소음



전략적 소음지도: 교통소음 종합

Bevegen in der Karte Markieren für Sachdaten Überlagern Dossier Angaben zur Karte Drucken



인터넷상에서 주소입력으로 방음창 지원여부 확인 가능(푸른색 도로선이 지원구간)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laerm/laermminderungsplanung/de/schallschutzfenster/info.shtml>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403/nachricht5188.html

반려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생을 위한 ‘할스플랜’ 실시

도쿄도 / 환경·안전

-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반려동물이 점차 깊은 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동물 유기나 학대, 또는 동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 반려동물 관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4년 3월부터 도쿄도 보건국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생을 위한 할스(HALTH) 플랜을 실시함.
- 할스플랜은 2007년부터 실시해 오던 “도쿄도 반려동물 관리 추진계획”을 개정한 것으로 “Human and Animal Live Together in Harmony”의 각 머리글자를 따 명명된 것임.
 - 도쿄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할스플랜을 실시하며, 도민, 사업자, 자원봉사 기구, 각 행정구역의 개별적인 정책 실시와 함께 각 주체간의 제휴·협동을 장려하고 있음.
 - 개정법에서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인이 제대로 사육해야 하는 ‘평생사육’의 책임에 대해 명기하고 있음. 그 밖에 애완동물 솥 등에서 동물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 대한 대면 설명 철저, 너무 어린 새끼 고양이의 판매 제한, 개·고양이의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15개의 구체적인 정책이 다음 표와 같이 제시되어 있음.

할스플랜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

동물의 적절한 사육	시책1. 적정사육, 평생사육에 관계된 보급 계몽 강화
	○ 안이한 사육 방지 ○ 주인의 책임 철저 ○ 상담창구 기능 강화
	시책2. 개의 적절한 사육
	○ 개의 등록,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률 향상
	시책3. 주인 없는 고양이에 대한 대책 확충
	시책4. 집단사육에 의한 문제예의 대응
	○ 행정구역에서의 관계 부서 간 연계체계 구축
	○ 행정구역에서의 관계단체 ·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동물의 적절한 사육	시책5. 동물의 유기·학대 방지에 관한 대책 시책6. 적절한 사육의 보급 계발에 관련된 동물애호추진원(動物愛護推進員) 등의 인재 육성 ○ 행정구역과 전문가 제휴 추진/연구의 충실 시책7. 초·중학교 교육 현장의 반려동물 관리의 교육
사업자에 의한 동물의 적절한 취급	시책8. 동물 취급업의 감시 강화 ○ 동물 취급업에 관한 규제의 주지 ○ 동물 판매업자에게 감시 지도의 강화 시책9. 동물 취급업의 지도 사항 확대 ○ 업체에 따른 감시 지도 ○동물 취급업 관련인 인재 육성 시설에 대한 지원 시책10. 특정 동물 사육 허가 및 적정 사육 철저 ○ 주인 등에 대한 감시 지도의 강화 시책11. 산업 동물 및 실험 동물의 적절한 취급에 대한 대응 ○ 축산업자 등 지도 ○ 실험 동물 시설에의 보급 계발
동물의 도살처분 수 감소	시책12. 반려동물 양도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봉사단체 등과의 제휴 확대 지원 ○ 양도 제도의 보급 계발 시책13. 취급 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의 확보 ○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사육 관리의 추진 ○ 수용 시설에서 양도 확대를 위한 시설로의 전환의 검토
재해대책을 위시한 위험관리	시책14. 동물 유래 감염증에 대한 대응 강화 ○ 동물 유래 감염증의 발생에 대비한 제휴 체제 강화 시책15. 재해시의 동물 구호 체제의 강화 ○ 재해시의 동물 구조 기능 강화 ○ 행정구역과 동물 구호 자원 봉사와의 연계 추진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4/03/70o3v100.htm>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4/03/DATA/70o3v100.pdf>

도시교통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언덕길에 자전거 케이블 설치

노르웨이 트론헤임시 / 도시교통

- 노르웨이는 자전거 이용률이 높으면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지속적 증가는 자전거 이용자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시설과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노르웨이 중부 도시 트론헤임(Trondheim)市는 가파른 언덕길에 자전거 케이블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언덕길 이동이 쉽도록 도와주고 있어 많은 도시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 트론헤임市는 1993년에 최초로 경사진 언덕에 130m에 달하는 자전거 케이블을 설치하였는데, 그동안 2십만 명에 달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하였으며 현재는 관광 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현재까지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에 CycloCable로 교체됨.
- 현재 설치되어 있는 CycloCable은 스키 리프트와 비슷한 개념인데, 도로노면에 설치된다는 점이 다름.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에 탄 채로 언덕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발판에 한 발을 얹은 후 시설물의 이동버튼을 누르면, 케이블이 2.0m/초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자전거도 같이 이동하게 됨.
- 시간당 300명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18도의 경사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500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함.



자전거 케이블을 이용하여 언덕을 오르기 위해 준비 중인 이용자의 모습



자전거 케이블의 발판(좌)과 자전거 케이블을 이용하여 언덕을 오르고 있는 이용자의 모습(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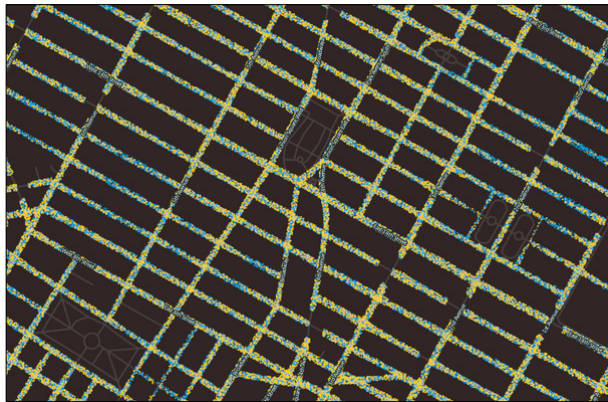
- 현재까지는 실제 도로에 자전거 케이블이 설치된 곳은 트론헤임市가 유일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테스트 중에 있음.
- 2007년 트론헤임市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41%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자전거 케이블 때문에 자전거를 자주 이용한다고 밝힘.
- 현재, 언덕이 많은 샌프란시스코市는 이 자전거 케이블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안전성 확인과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예비 연구 등으로 인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피츠버그市도 이러한 자전거 케이블 도입을 고려중에 있음. 예전에는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안전성 문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비용편익 측면에서 예전보다 도입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4/04/bike-elevator-take-you-steep-hills/8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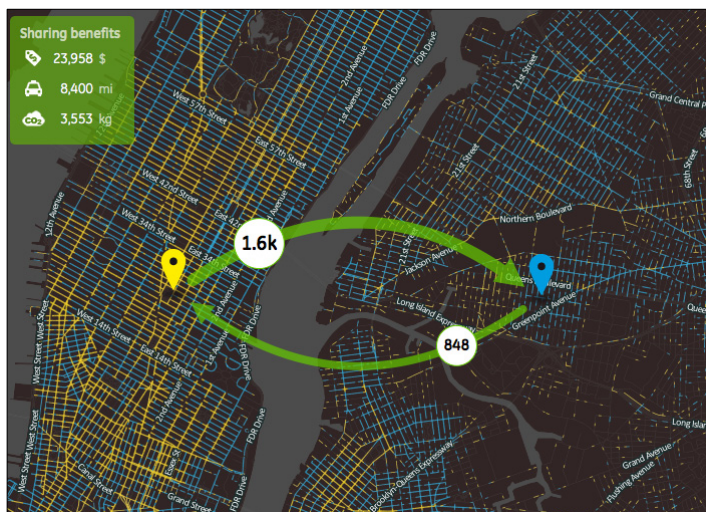
도심에서의 택시 공유 가능성 분석

뉴욕市 / 도시교통

- MIT의 한 연구기관(Senseable City Lab)이 뉴욕市 모든 택시의 GPS 기반 기·중점 통행시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80%에 가까운 통행들이 기중점, 출발시간이 비슷해 이용자들이 3분 정도의 지체를 감수할 수 있다면 실제로 택시 통행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택시 통행 공유는 주로 대규모 통행 유발지역인 공항이나, 철도역 등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대규모 통행 자료를 바탕으로 택시 공유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뉴욕市에서 택시 통행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데이터에 의하면 맨해튼을 기·중점으로 하는 통행은 2011년 한 해 동안 1억 5천만 통행이 발생하였음. Grand Central역에서 Union Square역으로의 통행은 하루 평균 73,000번의 통행이 발생하였으며, 반대 방향으로는 94,000번 발생함.
 - 연구진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기 시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택시 공유 모델을 제시하고, ‘Sidecar’, ‘Lyft’ 같은 인터넷 기반의 앱을 이용한 개인 차량 공유시스템을 택시 통행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함.
 - 비록, 이러한 택시 공유시스템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택시 통행 공유가 가져오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 향상, 대기오염 개선, 이용자의 택시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택시 통행 자료를 바탕으로 "Sharability Network"를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뉴욕에서 택시 통행의 공유 가능성을 제시

<http://hubcab.org/#11.00/40.7191/-73.8500>

<http://hubcab.org/press/hubcabpressrelease.pdf>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4/03/how-system-shared-taxi-rides-could-transform-new-york-city/8530/>

도시계획·주택

저렴 주택 중심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호주 시드니市 / 도시계획·주택

- 최근 시드니(Sydney)市는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도시의 주거 지불능력(housing affordability)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임금 가구들은 점점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도심 이탈과 이로 인한 소득집단의 동질화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 도시에 위치한 특정 직종의 고용주들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문화 예술 분야의 ‘창의적 근로자’들의 도심 이탈은 도시의 다양성과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근로자들의 주거지가 점점 도심 외곽으로 밀려남에 따라 도심 지역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자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도심 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저하되고 있음.
 - 또한, 도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심각한 주거 스트레스(housing stress)를 경험하고 있으며,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 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출퇴근 시간의 지속적인 연장은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도 증가시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도심의 도시기능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市는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Sustainable Sydney 2030)이라는 장기 도시 전략에 주거 지불 능력 향상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2030년까지 사회주택(social housing)과 저렴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7.5%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사회주택은 市 또는 연방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주택형태로서 주로 빈곤계층의 주택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면, 저렴 주택은 이들보다 소득이 높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영리 지역사회 기관이나 영리 기관에서 제공되는 주택형태임.

- 이 전략에 따라, 시드니 도심의 주택은 2030년까지 18% 증가하게 되며, 저렴 주택 공급은 현재보다 약 4배 정도 증가하게 되어 약 8천 가구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임. 이는 기존의 사회 주택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저렴 주택 중심으로 중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평가됨.

시드니市の 주택공급 목표

연도	2006	2030	공급 증가
사회 주택	9,397	10,050	653
저렴 주택	2,091	10,050	7,959
전체 주택	90,000	134,000	44,000

- 市는 저렴 임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Affordable Rental Housing Strategy 2009~2014)을 마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해 왔음. 울티모(Ultimo)와 피어몬트(Pyrmont) 지역에서는 600 가구의 저렴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어 이미 450개의 저렴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신규로 그린스퀘어(Green Square) 재개발 지역에 330 가구의 저렴주택 공급이 승인되어 2014년 말까지 100가구의 입주가 계획되어 있음.
- 市는 저렴 주택 공급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의 건설업체와 협상을 통해 저렴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 주정부의 “저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환경 계획 정책”(Affordable Rental Housing 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 법령에 의거하여 市는 재개발 사업자에게 저렴 주택 공급에 대한 기여를 강제할 수 있음. 사회통합형 용도구역제(inclusionary zoning)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이 정책에 따라, 재개발 사업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저렴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음. 첫 번째는 공급 주택 면적의 일정 비율(현재 3%)을 저렴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공급 주택의 1평방 미터당 일정 금액(150.20 달러)을 부과금(affordable housing levy)으로 납부하는 방식임.
- 입주, 임대 계약 및 임대료는 정부와의 협력관계에 있는 영리 및 비영리 기관들에 의해 관리되며, 현재로는 대부분 지역사회 주택을 담당하는 비영리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저렴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대체로 사회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가진 가구는 저렴 주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저렴 주택은 더 광범위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2014년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45,956 호주달러(약 4천 6백만 원), 그리고 5인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9,264 호주달러(약 1억 1천만 원)를 넘지 않으면 입주를 신청할 수 있음.

저렴 주택 입주 소득 기준(2014)

가구 형태	가구규모	최대 연간 가구 소득(호주달러)
한부모 가구	단독	45,956
	1 자녀	63,579
	2 자녀	78,822
	3 자녀	94,065
양부모 가구	무자녀 가구	63,535
	1 자녀	78,778
	2 자녀	94,021
	3 자녀	109,264

- 저렴 주택의 임대료는 공급 주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나 다음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됨. 첫 번째는 현재의 시장 가격에 기초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비슷한 지역과 조건의 시장 임대료보다 약 20~25%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료가 결정됨. 두 번째는 입주 가구의 세전 소득에 기초한 방식으로, 가구 소득의 25~30%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됨.
 - 저렴 주택 입주자들은 임대 계약을 통해 통상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함.
- 시드니市 저렴 임대 주택 실행 전략은 홈페이지(http://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10/127369/affordable_rental_housing_strategy_amendments_FINAL_180510.pdf)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음.

[http://www.sydneymedia.com.au/new-affordable-housing-lets-workers-live-locally/?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SydneyMedia+\(Sydney+Media++City+of+Sydney\)](http://www.sydneymedia.com.au/new-affordable-housing-lets-workers-live-locally/?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SydneyMedia+(Sydney+Media++City+of+Sydney))